
미디어 개혁과 멕시코의 민주주의

조영현

서울대학교 라틴아메리카연구소 HK연구교수

핵심어: 미디어 개혁, 민주주의, 제도혁명당, 텔레비사, 학생운동

1. 들어가는 말

2012년 12월 1일 멕시코의 새 대통령으로 취임한 엔리케 페냐 니에토(Enrique Peña Nieto)는 멕시코에 시급히 필요한 개혁들에 대해 언급하며 그중 하나로 방송통신법 개정을 약속했다. 그러나 이번 방송통신법 개정은 단순히 일부 조항을 바꾸는 데서 그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헌법의 조항을 바꾸어야 한다는 점에서 볼 때 방송통신 시장뿐 아니라 멕시코 사회에 큰 변화를 초래하는 것이다. 지지부진한 노동, 에너지, 세계개혁에 대한 논의 과정과 달리 단시일 내에 정치권이 합의하고 법이 개정됐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다. 이것은 2012년 대선 이후 멕시코 국내 정치 상황에서 이 분야 개혁이 얼마나 시급하고 중요한 이슈였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새 대통령은 취임 이틀 뒤, 주요 3당 지도자들과 함께 정치, 경제, 사회 등 전 분야에 걸친 개혁의 방향을 언급한 ‘멕시코를 위한 협약(Pacto por Mexico)’에 서명했다. 주요 정당과 행정부 수장이 논의를 거쳐 큰 틀에서 주요한 합의가 이루어졌고, 그 주된 결실 중 하나가 바로 방송통신법 개정으로 이어졌다. 새 법안은 2013년 4월 25일 하원을 통과했고, 같은 달 4월 30일 상원도 108명 찬성, 3명 반대, 2명 기권으로 이를 승인했다.¹⁾ 멕시코 주의 의회를 비롯한 각 지역 의회에서도 이를 승인했다. 최종적으로 같은 해 6월 10일 페냐 니에토는 이 법안을 연방 관보에 공지하고 반포했다.

멕시코 국민들 사이에 방송통신 관련 서비스나 품질, 가격에 대한 불만은 오래전부터 존재했었다. 예를 들면, 2013년 BGC와 전국 일간지 엑셀시오르(Excélsior)가 공동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일반 전화 서비스 이용료가 비싸다거나 아주 비싸다고 대답한 응답자가 49%에 달한다. 그러나 이동전화의 경우는 비싸다고 대답한 사람이 41%, 아주 비싸다고 대답한 사람이 36%로 77%의 응답자가 비싸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인터넷 서비스의 이용료에 대해서도 비싸다거나 아주 비싸다고 대답한 응답자가 60%에 달했다.²⁾ 멕시코는 OECD 국가 평균과 비교해도 방송통신 분야 투자가 미약했다. 멕시코 포브스(Forbes)지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OECD 국가들 평균 일인당 연간 1447달러가 투자되었다면, 멕시코에서는 일인당 346달러 투자에 그쳤다(Mendoza Escamilla 2013). 멕시코의 일반 전화 보급률은 100명당 17.4대이다. 지역 간 편차도 심한데 멕시코시는 100명당 46.3대로 일반 전화가 집중된 반면, 치아파스 주는 100명당 5.4대, 오아하카 주는 7.2대에 그쳤다. 통신 분야에 대한 일반 국민의 접근도 쉽지 않을 뿐 아니라

1) <http://alt1014.com/2013/05/reforma-de-la-ley-federal-de-telecomunicaciones-de-mexi...>

2) <http://www.imagen.com.mx/segun-encuesta-mexicanos-avalan-reforma-en-telecomun...>

불평등하다. 1억 1천 5백만 인구 중 4500만 명 정도가 인터넷 사용인구이고, 인터넷 서비스 망이 갖추어진 가정은 2240만호뿐이다(Ibid.). 종합적으로 보면 서비스 이용료는 비싼데 품질이나 기본적 인프라는 뒤쳐져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방송통신법 개정 문제는 단순히 가격이나 품질, 서비스 개선 등과 같은 경제적 문제나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촉발된 것이 아니다. 오히려 미디어 재벌이 잡고 있는 '방송권력'과 정치권력과의 공모나 결탁 등 멕시코 정치체제에 대한 불만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2. 학생운동과 방송통신 분야에 대한 문제제기

방송통신 분야의 민주화에 대한 요구는 대선 과정의 한 에피소드에서 시작되었다. 2012년 5월 11일 제도혁명당(PRI)의 엔리케 페냐 니에토 후보는 주로 상류층 자녀들이 다니는 멕시코 사립 명문대학인 이베로아메리카대학교를 방문해 연설했다. 그러나 질의응답 시간에 한 무리의 학생들은 페냐 니에토가 멕시코 주지사 시절 행한 정책을 비판했다. 특히 아텐코(Atenco) 사태 때 투입한 공권력이 권력 남용이자 불법이었음을 지적했다. 그러나 페냐 니에토는 자신의 행동이 정당했음을 항변하고 다시 그런 결단의 순간이 오면 똑같이 하겠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그는 학생들의 거센 항의 때문에 도망치듯 학교를 빠져나갔다. 그러나 이 사건에 대해 주요 TV 방송국과 일간지들은 외부 세력의 사주를 받은 사람들이 페냐 니에토 후보를 음해하려고 보이콧을 주도한 것처럼 보도했다. 사실을 왜곡하고 사태를 축소시킨 것이다(Candon Mena 2013, 3; 조영현 2013, 29). 이 기사들에는 학생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고, 제도혁명당 소속 고위급 인사들의 주장만이 사실 확인 없이 그대로 실렸다. 그러자 이 행사에 참석한 131명의 이베

로아메리카대학교 학생들은 자신들의 학생증과 학번, 소속을 비디오 앞에서 밝히고 사실이 왜곡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비디오를 유튜브를 통해 공개했다. 자신들은 동원되거나 누구의 시주를 받은 폭력배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후 많은 젊은이들과 대학생들이 SNS를 통해 131명과 뜻을 같이하면서 ‘내가 132번째’라는 학생운동이 탄생했다. 이 학생운동은 우연히 나타난 것 같지만 사실은 신자유주의의 위기가 파생시킨 정치 위기 속에서 나타났다는 점에서 최근에 발생한 일련의 사회운동과 같은 맥락 속에 위치해 있다. 따라서 칠레, 스페인, 포르투갈, 미국 등에서 나타나고 있는 ‘젊은이들의 정치로의 귀환’과 무관한 것이 아니다(Natanson 2013).

‘내가 132번째’ 학생운동은 대통령 선거일을 40여일 남긴 시점에 멕시코 사립문대학들과 멕시코 국립대학교(UNAM)를 비롯한 국공립 대학교 소속 학생들이 동참하면서 선거 정국에 커다란 파장을 일으켰다. 이들은 주로 가정 내 인터넷 망과 노트북, 스마트폰을 소유한 도시 중산층 대학생들이었다(Sosa Plata 2012, 82). 이 학생들이 분개한 것은 무엇보다 왜곡보도와 공정하지 못한 방송의 처신 때문이었다. 따라서 가장 먼저 실천에 옮긴 것은 멕시코를 대표하는 미디어 재벌인 텔레비사(Televisa) 앞에서 항의 집회를 갖는 것이었다. 학생들은 민감한 선거 기간에 중립을 지켜야 하는 매스미디어들이 편파 보도와 정보 왜곡을 일삼는 현실을 고발했다. ‘내가 132번째’ 소속 학생들은 7월 1일 대선 전까지 시급히 요구되는 일이 미디어의 정보왜곡과 중립성을 상실한 언론으로부터 대선 과정의 민주화를 지켜내는 일이라고 보았다(조영현 2013, 32). 따라서 우엑카(Huexca) 지역에서 개최된 첫 전국학생모임에서 이미 미디어 부분 개혁을 강력히 주장했다. 특히 그들은 언론과 방송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이 소수의 미디어 재벌이 지배하는 왜곡된 시장의 독점구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일반 통계지표가 집중의 정도를 명확히 보여준다. 멕시코에서는 단지 두 기업이 95%의 상업방송 허가권을 독점하고 있다. 페르난도 부틀러가 인용한 「멕시코 내 라디오와 TV 주파수 집중과 분배」라는 문서의 자료에 따르면, 텔레비사는 56%에 해당하는 257개(독자운영 225개와 동업 운영 주파수 32개)의 주파수를 갖고 있다. 반면 TV 아스테카는 39%에 해당하는 180개의 주파수 사용권을 보유하고 있다. 라디오의 경우 방송국을 단지 13개 가문이 독점하고 있다(Comisión de Comunicación y Prensa de #yosoy132, 2013).

텔레비사는 스페인어권 최대 미디어 재벌의 위상을 가지고 있다. 브라질의 거대 미디어 기업인 글로보(Globo)와 비교했을 때 텔레비사는 연 수입 면에서는 다소 뒤지지만, 정치적 영향력, 사업의 다양성, 시청자 규모 면에서는 브라질 미디어 기업을 훨씬 능가한다. 텔레비사의 주력 사업은 단연 TV 방송 부분이다. 텔레비사의 수익 중 91%는 바로 이 부분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지상파 TV뿐 아니라, 위성 TV, 유료 TV, 케이블 TV 시장을 장악하고 있고, 미국에서도 스페인어 사용 인구를 위해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유니비전(UNIVISION)을 소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멕시코 국경을 넘어서 운영되는 세계적 방송기업이다. 수많은 프로그램이 라틴아메리카에서 실시간으로 방송되거나 재방송된다는 점에서 그 영향력이 스페인어권 전역에 미치고 있다(Trejo Delarbre 2014, 149-154)³⁾.

멕시코의 통신 부분의 독점 현상도 크게 다르지 않다. 카르소 그룹(Grupo Carso)의 카를로스 슬림 회장이 소유한 텔셀(Telcel)이 이동통신의 70%, 고정 전

3) 텔레비사는 방송뿐 아니라 165개에 달하는 다양한 잡지를 세계 20여 개국에서 발행하고 있다. 또한 아메리카와 벵카사 등 두 개의 프로축구 구단과 많은 카지노도 운영하고 있다. 이동통신사 유사셀의 자산을 TV 아스테카와 나누어 갖고 있고, 무선 통신사인 넥스텔의 지분도 보유하고 있다.

화선의 80% 독점하고 있다.⁴⁾ 따라서 멕시코의 1억 1천 500만 명의 사람들은 단 하루도 최소 1 센타보를 그에게 바치지 않고는 그냥 지나갈 수 없다는 자조적인 이야기가 확산되었다.⁵⁾

‘내가 132번째’ 소속 학생들은 단지 미디어 시장의 독점 구조뿐 아니라 처음으로 민주주의와 미디어의 상관성에 대해서도 주목했다. 이미 2006년 방송통신법 개정 전에도 하비에르 에스테이노우가 강조한 것처럼 민주주의 건설에 있어 미디어의 중요성은 많은 이들이 인식하고 있는 문제였다(Esteinou 2004, 7). 그러나 학생들의 지적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가 대선정국과 맞물려 새로운 반향을 일으켰다. 학생들은 다음과 같이 탄식했다.

소수에게 여론조사와 광고들이 집중되어, 여론이 통제되고 있다. 현실에 대한 냉소와 슬픈 회화 속에, 그리고 드라마의 공허한 인물 속에, 진실은 한낱 소비품으로 전락한 왜곡된 정보의 담 속에 은폐되어 있다. 만일 우리가 진정한 민주주의를 원한다면, 미디어의 민주화를 외면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의 빈약한 민주주의가 갖고 있는 모든 결함과 같이, 정보의 집중과 왜곡은 옛 체제와 거짓된 변화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이다.⁶⁾

‘내가 132번째’ 운동에 참여한 학생들은 언론과 방송의 역사를 성찰해 보고 텔레비사를 정보 왜곡을 통해 권력과 공모한 상징으로 이해한 것이다. 이것은 그들이 지난 수십 년간의 계속된 미디어와 정치권력 사이의 상관관계를 성찰해서

4) <http://alt1014.com/2013/05/reforma-de-la-ley-federal-de-telecomunicaciones-de-mexi...>

5) <http://www.reuters.com/article/topNews/idMXL1N0C407B20130313>

6) <http://desinformemonos.org/2012/07/televisa-en-la-mira-del-132/print/>

얻은 결론이었다.

3. 미디어와 정치권력간의 관계

멕시코에서 미디어와 정치권력 간의 밀착관계는 1910년 멕시코 혁명이 발발한 이후에 구체화되었다. 새로 권력을 잡은 세력은 혁명 이념을 확산시키고 이에 근거해 국가를 통치하려 했다. 라디오 방송이 일반화되기 전에는 주로 저역 셀시오르(Excelsior)나 엘우니베르살(El Universal)과 같은 신문들이 주로 이용되었다. 글을 아는 중산층과 엘리트들은 국내에서 일어나는 일과 현실을 파악하기 위해 신문에 많이 의존했다. 그러나 1930년대 에밀리오 아스카라가 비다우레타(Emilio Azcárraga Vidaurreta)가 처음으로 라디오 방송국을 설립하자 권력 당국은 라디오를 적극 활용했다. 혁명 이후 정치권력이 제도혁명당을 중심으로 한 체제로 전환되면서 제도혁명당과 미디어의 밀월관계가 강화되기 시작했다. 1950년대 이후 TV 방송이 시작되면서 미디어의 사회적 과급력은 더욱 확장되었고, 방송은 혁명 이념을 선전하는 주요 도구가 되었다. 특히 에밀리오 아스카라가 비다우레타가 설립한 최초의 TV 방송국 텔레비사는 ‘제도혁명당의 대변인’ 역할을 자임했다(Castro Lala 2012, 4-6). 1951년 텔레비사 창설이후 제도혁명당과 이 미디어 기업의 공모는 지난 60년간 완벽히 작동되었다. 70년 이상 ‘완벽한 독재’를 구현한 제도혁명당은 국민에게 다가가기 위해 미디어를 이용했고, 장기간 일당 독재라는 마술이 가능했던 배후에는 미디어와 정치권력 간의 밀월관계가 있었다(Luz Estrella y Massimo Modonesi 2012, 238).

텔레비사는 권력과의 결탁을 통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다른 기업의 시장진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면서 독점체제를 구축할 수 있었던 것도 제도

혁명당의 지원 때문에 가능했다. 법적으로 특혜를 보장받았고, 공적 자금도 쉽게 이용할 수 있었다. 게다가 정부 기관들이 제공하는 다양한 인허가도 손쉽게 받아냈다. 정부는 방송 분야의 독과점 방지나 사장의 다변화를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 라디오와 TV 관련 법령이 지난 50년간 변하지 않았던 이유도 여기에 있었다. 시민사회를 대변하는 라디오나 공공성을 지향하는 TV 방송이 성장할 수 없었고, 원주민이나 다른 단체들의 방송은 소외되거나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했다. 영국의 BBC와 같은 공영방송 부분을 키우지 않았던 것도 미디어 재벌과의 결탁이 완벽했기 때문이다. 결국 제도혁명당 정권은 미디어의 공공성을 포기하고 미디어의 사유화를 지원한 것이다. 시민들에게 소통의 공간을 제공하지 못하고 정권과 결탁한 텔레비사와 같은 상업 방송이 미디어 산업의 발전을 주도하게 되었다.

60년대 이후에도 방송과 관련된 모든 중요한 정치적 결정들은 텔레비사 주주들에게 이롭게 돌아갔다. 대신 정보는 통제되고 뉴스는 왜곡되었다. 특히 야당 세력의 목소리는 조작되었고, 시민들의 요구는 교묘히 통제되었다. 방송은 야당 세력과 반정부 세력에 비판여론을 수렴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지 않았다. 한 예로, 1968년 10월 2일 틀랄텔롤코 학살이 자행된 날 아침 앵커 하코보 살루돕스키(Jacobo Zabłudowski)는 “쾌청한 날씨입니다”라는 멘트와 함께 날씨를 주요 뉴스로 다루었다. 결국 이날 텔레비사는 이 사건을 축소 보도했다. 이처럼 제도혁명당 정권에 위협적인 학생운동과 관련된 정보는 자체 검열, 왜곡, 축소되어 방송되었던 것이다(Asambleas de #yosoy132 2012, 8). 그러는 사이 미디어를 장악한 제도혁명당은 모든 선거에서 유리한 입지를 확보할 수 있었다. TV 화면 모니터를 통한 정치는 원천적으로 공정한 선거를 차단했다. 텔레비사는 제도혁명당을 제외한 다른 정당과 국민 간의 소통을 차단한 것이다.

1972년부터 1997년까지 텔레비사를 운영한 에밀리오 아스카라가 밀모(Emilio

Azcárraga Milmo)도 아버지의 노선을 따라 정부에 협력하면서 기업에 유리한 거래를 계속하며 성장했다. 이 기간 대통령은 바뀌었지만 미디어 재벌과 정권 간의 밀착 관계는 지속되었다. 기업에는 경제적 이익과 독점적 성장이 보장되었고, 정권은 미디어의 도움으로 통치의 정당성을 계속 확보할 수 있었다. 두 세력 간 이해가 일치했기 때문에 이 공모와 결탁 관계는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었다. 이 점에 대해 트레호 델라르브레는 “텔레비사는 정치체제에 봉사했고, 정치체제는 텔레비사에 봉사했다(Trejo Delarbre 2014, 156)”고 단언한다. 이 기간 텔레비사의 TV 화면에 비친 멕시코는 긴장이나 불평등이 없는 문제없는 나라로 오랫동안 미화되었다.

하지만 2000년 이후 정치 상황의 변화는 미디어 재벌과 정치권력 사이에 새로운 관계를 요구하기 시작했다. 1997년 최초로 제도혁명당은 의회의 다수의석을 상실하는 위기를 맞았다. 그것은 80년대 외환위기, 1985년 대지진, 1988년 부정선거 등 제도혁명당의 계속된 실정 때문이었다. 멕시코는 주요 미디어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전능한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과별적 정치체제에서 다양한 정치세력들이 공존하는 추세로 변화하고 있었다. 제도혁명당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증폭되었고, 결국 국민은 정치적 대안을 찾기 시작했다. 국민행동당(PAN)과 민주혁명당(PRD)의 약진으로 멕시코 정치판은 3당 체제로 전환되었다. 예전처럼 제도혁명당이나 여당의 대통령 혼자서 좌지우지하던 시대가 종말을 고한 것이다. 2000년 제도혁명당이 권력을 상실하고 대통령이 국민행동당에서 나오자 텔레비사를 비롯한 미디어 재벌은 이제 제도혁명당에 눈치를 보지 않게 되었다. 다른 대기업들과 연대하면서 정치권력의 지배에서 어느 정도 벗어난 미디어 재벌들은 더욱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을 늘리는 데만 집중했다. 예전에는 거대 미디어 재벌과 정부가 상호 이익을 위해 협력하는 동업자적 관계였다면, 최근에는 정부가 텔레비사의 다양한 고객 중 하나가 되는 추세

로 바뀌었다(Trejo Delarbre 2014, 157). 노베르토 보비오는 미디어가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와 달리 권력 전면에서 활동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권력’이라고 불렀다(Bobbio 1986, 22-24). 하지만 멕시코에서는 미디어 권력을 ‘실제 권력’이라고 부른다. 한 예로 멕시코 내 최대 미디어 재벌인 텔레비사의 핵심 임원 10명 중 5명은 멕시코를 대표하는 10대 부자에 속하는 사람들이다(조영현 2013, 36). 여기에 멕시코의 통신시장을 장악한 카르소 그룹의 회장인 카를로스 슬림을 포함시킨다면, 이들이야 말로 멕시코 시민의 눈과 귀를 장악하고 막강한 ‘미디어 정치’를 주도하고 있다는 말이 빈말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최근 여러 선거는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었다. 각 정당과 후보는 홍보문제나, 여론의 향배 때문에 더욱 미디어에 의존하게 되었다. 따라서 미디어 부분에 막대한 자금 투자하게 되었다. 멕시코에서는 어느 후보나 정당이 승리하느냐와 무관하게 진정한 승자는 정당, 정부, 시민사회가 아니라 언제나 미디어 재벌이라는 말이 회자되었다(Castro Lara 2012, 2). 특히 텔레비사와 TV 아스테카가 가장 많은 이익을 챙겼다. 미디어에 정치와 민주주의는 돈이 되는 사업일 뿐인 것이다.

2006년에는 텔레비사와 TV 아스테카가 정치권을 압박하면서 미디어 재벌에 유리하게 방송통신법을 개정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 곧 있을 대선과 여러 선거에서 미디어의 도움이 절실한 정당들은 여야 할 것 없이 새 법안을 지지했다. 이 법안이 ‘텔레비사 법안’이라고 불린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2000년대 후반부터 다시 제도혁명당과 텔레비사의 결탁이 재개되었다는 고발이 잇달았다. 텔레비사가 페냐 니에토 후보에게 유리한 호의적 여론을 조성하기 위한 여러 프로그램을 제작해 팔았다는 것이다(Asambleas de #yosoy132. 2012). 특히 헤나로 비야밀은 시사주간지 프로세스를 통해 미디어 재벌이 페

나 니에토를 멕시코 주 주지사 시절부터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마스크 캠페인 전략을 구사했다고 주장했다(Villamil 2012). ‘내가 132번째’ 학생운동도 텔레비사와 같은 미디어 재벌을 민주주의와 정치발전을 저해한 주범으로 지적했다(Comisión de Comunicación y Prensa de #yosoy132 2013, 3). 이런 현실을 개탄한 일부 진보 세력 중에서는 미디어의 국유화나 주파수 사용 허가권을 취소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그러나 이런 의견은 미디어와 언론의 관영화, 즉 쿠바화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시민사회 단체들로부터 거부당했다.⁷⁾

2012년 한 해는 이 미디어 부분의 민주화가 주요한 화두가 되었다. 대선 과정에서 학생운동이 강력히 요구한 것에 대해 시민사회 세력이 동조함으로써 변화의 실마리가 보이기 시작했다. 미디어 재벌의 지원을 받은 대통령도 이 문제를 피해갈 수 없었다. 결국 정치권이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게 되면서 ‘멕시코를 위한 협정’ 위원회를 통해 2013년 방송통신법이 개정되기에 이르렀다.

4. 새 방송통신법의 내용

2013년 초반 ‘멕시코를 위한 협정’(Pacto por Mexico)에서 최종적으로 합의한 것은 다음의 아홉 가지 사항이었다.

- 1 공정거래연방위원회(경쟁연방위원회)의 강화.
- 2 경쟁(공정거래) 관련 특별 재판소 창설.
- 3 광대역 접근권과 관리감독 기구의 효율성 제고.

7) <http://www.animalpolitico.com/2012/09/yosoy132-propone-dividir-medios-en-comer...>

- 4 COFETEL(Comisión Federal de Telecomunicación)의 자치 강화.
- 5 원거리 통신 간선망의 발전.
- 6 공공건물 내 광대역 주파수 서비스와 디지털 어젠다.
- 7 TV와 라디오 부문 경쟁.
- 8 데이터 서비스와 전화 부문 경쟁.
- 9 데이터 서비스, 전화, 라디오 TV 경쟁 강화 방식 채택(Peña Nieto 2013, 1-3).

그리고 이 합의는 새 법에 그대로 반영되었다.

2013년 6월에 새로 반포된 방송통신법의 재정 목적은 크게 다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먼저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정보 접근에 대한 권리를 증진하고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또 다른 목적은 그동안 시민사회와 일부 정당이 요구한 소수 미디어 재벌에 의한 시장 지배와 독점체제를 바꾸고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하는 기구를 강화시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미디어 서비스에 대한 가격 인하와 품질 개선, 그리고 인프라 증대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Ibid., 4-22).

이 법은 방송과 통신 분야를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한 공공서비스로 규정하고 있다. 사전 검열이나 방송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으며 정보, 아이디어, 사적인 의견에 대한 보급에 있어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또한 새 법은 정보과학기술에 대한 접근권이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 권리라고 명시하고 있다. 즉, 국가는 국민들에게 표현의 자유와 함께 방송통신 분야에서 새롭게 개발되는 광대역 주파수 같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새로운 방송통신법은 경쟁체제를 보장하고 방송통신 분야를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새로운 기구를 창설하고 이 기구들에 강력한 감독 권한을 부여했다. 이 기구들은 모두 헌법이 인정한 자치기구들로 자체 판단에 의한 결정권과 운영의 자유가 보장된다. 따라서 독자적인 예산을 할당받고 자치적으로 집행할 수 있

는 권한도 부여받았다. 공정경쟁연방위원회(la Comision Federal de Competencia Economica)는 소수 기업에 의한 독점이나 자본의 집중을 방지하고 예방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자유롭게 여러 기업들이 방송통신 분야에 진입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역할도 맡았다. 연방통신협회(El Instituto Fdederal de Telecomuicaiones)는 방송통신 분야의 관리감독 기능을 수행한다. 이 분야 서비스, 가격, 품질관리뿐 아니라 방송사업자들이 법을 어겼을 때 징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다(Ibid.). 위의 자치기구들과는 별도로 방송통신 관련 분쟁 해결을 담당할 특별재판소도 설치되었다.

이 법은 방송통신사업 관련 허가권을 상업적 분야에 이용할 것인지, 공적 분야, 사회적 분야, 사적 분야에 이용하는지에 따라 네 분야로 나누었다. 그리고 정부가 양도하는 허가권은 공개 입찰을 통해서만 부여될 수 있도록 제한했다. 방송사업 허가권과 관련해서 새 정부는 두 개의 전국 단위 공중과 TV 채널 사용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공개 입찰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미 분야별로 방송시장의 50% 이상 장악한 기업에 대해서는 독과점 방지 차원에서 참여를 제한했다. 개정된 법에서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외국기업에 대한 투자 개방이라고 할 수 있다. 미디어 분야의 시장 개방과 현대화를 지향한 조치이다. 이에 따라 외국기업들도 기존처럼 멕시코 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거나 공동투자 방식이 아닌 독자적으로 직접 시장에 진입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전기통신과 위성통신 부분에서는 100% 직접투자가 가능하고, 라디오 방송 부분에는 49%까지 직접 투자가 보장되었다.⁸⁾

8) <http://eleconomista.com.mx/industrias/2013/06/11/publican-reforma-ley-telecomunicaciones>

5. 나오는 말

‘내가 132번째’ 학생운동은 단순히 등록금 문제나 교육 체계를 비판하던 기존 학생운동의 틀을 벗어나 처음으로 사회와 정치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방송통신 부분과 민주화의 상관관계를 성찰했다. 그들은 시민들이 단순히 방송통신 분야의 소비자가 아니라는 것을 인식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오래 전부터 민주주의 체제를 수용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발짝도 전진하지 못하는 멕시코 정치체제의 문제의 뿌리를 방송통신 분야의 독점과 정권과의 유착관계에서 찾았다. 각국의 민주주의는 미디어 분야의 수준에 따라 좌우된다는 점에서 그들의 비판은 타당한 것이었다.

방송통신법 개정에 대한 국민의 지지가 81%로 상당히 높게 나온 것을 보면 어느 정도 새 정부도 이에 부응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미디어 시장의 독점구조 타파와 경쟁체제 도입, 공공성의 강화, 그리고 광대역 주파수 서비스와 인터넷 등 새로운 방송통신 분야에 대한 국민의 접근권을 확대한 것은 높이 평가받을 만하다. 재정된 법으로 인해 어느 정도 정치권력과 미디어 재벌 간 밀월관계나 조합주의 식 관계에 변화가 예상된다. 특히 독점구조는 장기적으로 서서히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로비라 산초가 강조한 대로,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 각종 블로그 등 SNS 시장을 주목할 필요성이 있다(Rovira Sancho 2012). 멕시코 내에서의 TV 방송은 방송시장에서 인터넷, SNS와 같은 다양한 대안매체들의 등장으로 그동안의 압도적 지위를 잃어가고 있는 중이다. 앞으로는 특히 TV 방송에만 의존하는 기업들은 시장 내 영향력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TV 방송보다도 일반전화선을 이용한 서비스를 주로 하는 텔멕스가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미 새로운 기술들이 보급되면서 통신 시장 자체도 이동통신 분야를 중심으로 돌아

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방송통신 분야에 중사하는 재벌들에는 위기 상황이 분명하다. 새 방송통신법이 반포된 직후 방송통신 분야 주요 기업들의 주식 가격이 하락한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다. 그러나 새로운 방송통신 환경에 적응해 체제 개편을 시도하고, 새 기술에 적극 투자하는 기업에는 기회가 될 것이라는 희망 섞인 전망도 없는 것은 아니다. 기본적으로 방송통신 분야는 세계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산업 분야이기 때문이다.

새 방송통신법은 학생운동이나 시민사회가 요구한 것들을 대체적으로 수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전의 법보다 좋은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방송 분야와 관련해서 시민사회의 불만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다. 먼저 정부가 방송통신의 문제를 시민의 권리와 공공서비스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은 인정했지만, 세부적인 사항에서는 지나치게 경제성장과 고용, 사업의 경쟁력 강화 등 기업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 법은 제도혁명당 주도로 정치권과 방송통신 관련 특정 이익집단의 밀실 합의를 거쳐 개정된 법이라는 한계도 가지고 있다. 다양한 사회적 분야 인사들이 참여한 공개토론이나 대화를 거쳐 합의를 도출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세세한 부분까지 시민사회나 영세한 비영리 지역 방송사들의 의견이 반영되지는 못했다.

새 법이 방송통신 시장의 변화를 주도할 수 있겠지만, 실천되지 않은 법은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멕시코는 새로운 법이 반포되었다고 바로 사회가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역사에서 여러 번 보여주었다. 법 자체의 제정이나 개정도 중요하지만 멕시코 정부의 실천의지와 시민사회의 철저한 감시가 더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분명한 것은 멕시코 정치가 변하려면 먼저 방송통신 분야에서부터 변화가 시작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앞으로 우리가 멕시코의 민주주의와 방송통신 분야의 변화를 면밀히 살펴보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참고문헌

- 조영현. 2013. 「2012 멕시코 학생운동, '내가 132번째」. 서울대학교 라틴아메리카연구소(편), 『2013 라틴아메리카: 대통령선거와 정세 변화』. 서울대학교 라틴아메리카연구소. pp.27-44.
- Asambleas de #yosoy132. 2012. “Toma pacífica a Televisa.”
<http://www.yosoy132media.org/asambleas-2/asambleas-metropolitanas/discurso-frente...>
- Bobbio, Norberto. 1986. *Futuro de al democracia*. México: Fondo de Cultura Económica.
- Candón Mena, José. 2013. “Movimientos por la democratización de la comunicación: Los casos del 15-M y #yosoy132.” *Razón y Palabra*. 82.
- Castro Lara, Jorge(2012). “Medios de comunicación y sistema político mexicano.”
<http://www.slideshare.net/casvetech/medios-de-comunicacion-y-sistema-politico-mex...>
- Comisión de Comunicación y Prensa de #yosoy132. 2013. “Proyecto de reforma constitucional en materia de democratización de medios de comunicación #Yosoy132.”
<http://www.yosoy132media.org/wp-content/uploads/2013/03/iniciativa-de-reforma-constitucional-Yosoy132.pdf>
- Esteinou, Javier. 2004. “Transición política y reforma de la Ley Federal de Radio y Televisión.” *Razón y Palabra*. 41.
- Estrello, Luz y Massimo Modonesi. 2012. “El #Yosoy132 y las elecciones en México. Instantáneas de una imposición anunciada y del movimiento que la desafió.” *OSAL*. 31. pp.218-233.
- Mendoza Escamilla, Viridiana. 2013. “¿Qué sigue tras la aprobación de la reforma en telecom?”
<http://forbes.com.mx/sites/que-sigue-tras-la-aprobacion-de-la-reforma-en-teleco...>
- Natanson, José. 2013. “El retorno de la juventud. Movimientos de repolitización juvenil en nuevos contextos urbanos”. *Nueva Sociedad*. 243. pp.92-103.
- Peña Nieto, Enrique. 2013. “Iniciativa de Reformas a la Constituci[on en materia de Telecomunicaciones y Competencia Economica.”
<http://www.presidencia.gob.mx/wp-content/uploads/2013/03/Iniciativa-Reforma-Constitucional-Telecom.pdf>
- Rovira Sancho, Guiomar. 2012. “La primavera Mexicana #YOSOY132, la comunicación y el proceso electoral de 2012 en México.”
<http://fundacionbetiko.org/wp-content/uploads/2013/03/Articulo-Yosoy132-Guiomar.pdf>

- Sosa Plata, Gabriel. 2012. “#Yosoy132: jóvenes frente a las redes sociales y la democratización de los medios de comunicación”. in Carlos Arango, et al., *Esfera pública y tecnologías de la información y la comunicación*. México: Instituto Electoral del Distrito Federal. 80-120.
- Vilamil, Jenaro. 2012. “Televisa y la imposición de Peña Nieto”. Proceso. 2 de julio.
<http://www.proceso.com.mx/?p=312908>
- Trejo Delarbre, Raúl. 2014. “Televisa: viejas prácticas, nuevo entorno”, *Nueva Sociedad*. 249. pp.149-162.

웹사이트

- <http://alt1014.com>
<http://www.animalpolitico.com>
<http://desinformemonos.org>
<http://eleconomista.com.mx>
<http://www.imagen.com.mx>
<http://www.reuters.com>
<http://www.sinembargo.mx>